

사채로 내몰리는 저신용자... “법정최고금리 인상” 목소리

2금융권 중심 신용대출 비중 줄여
소액 신용대출은 5년만에 최고치
상환리스크 줄이기 위해 몸 사려
향후 대출난민 40만명 발생 추산
OK·SBI 등 2금융권 수익성 악화

2금융업권과 대부업계를 중심으로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업권 내 수익성 악화로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 또한 담보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 지난 2002년 연 66%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20년 동안 하락해 연 20%까지 내려왔다.

제2금융권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뉴시스

신용대출 금액을 줄이고 소액 신용대출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 79곳 저축은행 가운데 3억원 이상 신규 신용대출을 내준 곳은 32곳에 머물고 있다. 반대로 500만원 미만의 소액신용대출 규모는 9411억원으로 2017년 상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저축은행 또한 몸 사리기에 나선 모습이다.

저신용자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대부업체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대부업권의 대표 격인 러시앤캐시와 리드코프 또한 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대부업체는 2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통상 연 10% 수준의

조달비용을 감안하면 저신용자에게 8~9%포인트의 금리를 더해 대출을 내줘야 한다. 대부업체가 신용 대출을 취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이유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이 커지면서 저신용 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40만명의 대출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사금융 업체의 평균 금리는 연 22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제로금리 시절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최고 금리 인하에 2금융권의 수익성 또한 악화하고 있다. 3분기 상위 5곳 저축은행(OK·SBI·웰컴·페퍼·한

국투자저축은행)의 실적은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SBI저축은행은 순이익 7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급감했다. 웰컴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은 상황이 더 안 좋다. 웰컴저축은행은 237억원을 나타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27% 감소했으며 페퍼저축은행은 순이익 1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줄었다. OK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그나마 상황이 좋은 편이다. OK저축은행은 494억원의 수익고를 올려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에 그쳤으며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39억원으로 8% 떨어졌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올해 조달비용 상승으로 예대마진이 축소되면서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면서 “소폭이라도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 통해 제2금융권의 숨통을 트이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암호자산 시장 확대... 특별법 만들어야”

한은, 암호자산 규제 이슈 및 입법방향
시장 확대에 사기·해킹 등 범죄 늘어

한국은행은 암호자산에 대한 특별법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자산 시장이 커진 만큼 이를 이용한 사기, 해킹, 개인정보유출 등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암호자산을 분류하고, 암호자산거래소를 주식회사로 등록·인가해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공시의무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

한국은행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호자산 규제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암호자산 투자자 수는 지난 2022년 6월말 1310만명(중복 합산)으로 시가총액은 23조원이다. 일 평균 거래규모는 상반기 기준 5조3000억원 수준이다.

한은은 암호자산의 분산원장기술(DLT)을 적극활용하되 투자자보호 및 금융시장안정 등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돼

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산원장기술이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이 특정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닌 P2P(Peer to Peer)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한은은 우선 암호자산을 형태, 성격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암호자산을 ▲증권성 ▲가치안정성 ▲준거자산의 종류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업행위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율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암호자산거래플랫폼에 대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내부거래금지, 복원가능한 시스템을 유지, 거래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에 따라 암호자산 교환업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과 이해상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거래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또 EU 등 주요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참가자간 정보비대칭, 해킹 등으로 인한 투자자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EU는 암호자산 백서에 대한 공시규제를 시행하고 일본은 암호자산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규가 미비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암호자산 발행 시, 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암호자산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의무 미이행 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제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암호자산 규제와 관련해 동향을 점검해 입법방향에 대한 집필자들의 개인적 견해를 제시한 것”이라며 “지급결제, 통화정책, 금융안정 측면에서 중요 관심주제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규제동향을 정리해 ‘가상자산 기본법’ 등의 입법논의에 참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카뱅, 모바일 앱 홈화면·오픈뱅킹 개편

계좌개설 없이 banking서비스 이용

카카오뱅크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홈 화면과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편한다.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bankin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5일 고객이 카카오뱅크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 계좌까지 구분 없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융계좌는 홈 화면에서 등록하면 된다. 오픈뱅킹 서비스인 실시간 잔액 조회, 타행간 이체 외에 계좌 거래 내역 조회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다른 금융회사 계좌도 카카오뱅크 계좌와 동일하게 취향에 맞춰서 계좌명, 색상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 앱에 처음 방문한



/카카오뱅크

고객은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재 이용 중인 다른 은행, 증권사 계좌를 등록해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이체 등 bankin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홈 개선에 맞춰 개인사업자 전용 화면인 ‘사장님 홈’도 새롭게 선보였다. 사장님 홈은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필요한 것만 모은 맞춤형 페이지로 사업자 고객만을 위한 banking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금융 ‘친환경 ESG’ 2023년 달력 배포

소재부터 포장지까지 ‘친환경’
비닐·플라스틱 대신 종이 사용

우리금융그룹은 친환경 ESG를 테마로 2023년 달력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우리금융그룹의 달력은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소재부터 포장지까지 환경을 생각해 제작됐다. 국제산림관리협의회에서 인증받은 친환경 종이를 사용해 지속가능한 산림을 지원하게 된다.

우선 ‘탁상형 달력’은 쉬운 재활용을 위해 삼각 지지대의 코팅을 없앴고, 비

닐 포장지 대신 종이 포장지를 활용했다. 특히, 우리은행 고객들이 직접 작성한 글귀와 여러 시인의 글귀를 바탕으로 제작해 ‘우리’가 함께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탁상형 달력’은 우리금융그룹 모델 아이유가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며 고객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한 ‘그림형 달력’도 플라스틱 홀더를 종이로 바꾸고 ESG를 주제로 한 국내 화가들의 개성 있는 작품으로 구성됐다. 자연의 소중함을 표현한 일러스트레이션 등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2023년도 달력은 그룹의 ESG 전략에 맞춰 달력 소재부터 포장지까지 세심하게 환경을 생각했다”며 “달력을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전 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KB국민은행 “계좌 개설하고 영화 봐요”

‘쿠폰복적금 with 롯데시네마’ 판매

KB국민은행이 오는 23일까지 ‘KB 쿠폰복적금 with 롯데시네마’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KB쿠폰복적금 with 롯데시네마’는 KB스타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6개월로 월 1000원부터 3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기본이율은 연 1.90%이며 ▲매일매일 성공 우대이율 최고 연 0.5%p ▲마이데이터 우대이율 연 1.0%p ▲주택청약 종합 저축 우대이율 연 1.0%p ▲KB스타뱅킹 이체 우대이율 연 0.1%p를 포함해 최고 연 4.50% 이자율이 제공된다.

다양한 롯데시네마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계좌 개설 즉시 롯데시네마에서 3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관람권을

지급한다. 매 영업일 저축 성공 시 영화 4000원 할인쿠폰과 매점점보 2000원 할인쿠폰을 5회 제공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신상품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 적금 가입 고객 스타뱅킹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505명에게 경품을 지급한다. 추첨 경품은 ▲삼성 The Freestyle(2명) ▲하만카돈 CITATION 멀티빔 700(3명) ▲롯데시네마 1인 주말관람권 2장(500명)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적금은 금융과 영화관 운영사의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높은 이자와 영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기획한 상품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